

베네수엘라 총파업으로 정국불안 심화

□ PDVSA 파업이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확산

-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의 파업이 전국 노조연맹인 CTV의 총파업으로 확산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정국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이번 총파업은 지난 2월 26일 차베스 대통령이 임명한 PDVSA의 신임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4월 4일부터 시작된 PDVSA 노조의 파업에 대해 CTV의 한시적 동조파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4월 9일 24시간 총파업으로 시작된 CTV의 총파업은 48시간으로 연장됐고, CTV의 카를로스 오르테가 위원장은 PDVSA 신임 이사진의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 또한, 이번 총파업은 차베스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기업가 단체인 상공인연합회(FEDECAMARA)와 일부 언론사들이 동참하면서 사실상 차베스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음.
- 한편, 이번 총파업으로 주요 석유관련 생산설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세계 4위의 석유수출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유가도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 금번 총파업으로 차베스 대통령은 집권 3년 중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총파업이 사실상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 운동으로 전개

되고 있고, 차베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석유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베네수엘라 경제는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차베스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복합적인 정치·경제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이는 빈곤층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차베스 대통령이 재임 3년 동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무리한 개혁정책 추진, 경제회복 실패, 대미관계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최근 고급장교 4명이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쿠데타 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 그러나 석유는 정부 재정수입의 50%, 총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중심 축으로 PDVSA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가 파국을 맞는다는 사실을 정부측이나 PDVSA 노조측 모두 잘 알고 있어 양측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문의처 김영석 ☎ 3779-6653 claudio@koreaexim.go.kr
최성규 ☎ 3779-6665 ppio93@koreaexim.go.kr